

# '돈 가뭄' 지역기업 '생명줄' 끊기나?

## 광주 '신혼부부용 주택' 40가구 첫 공급

### 금융당국 대출 억제 방침에 도산 위기

### 상환 능력 아닌 기술력 등 기준 완화될

금융감독당국의 대출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금융권의 대출억제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광주·전남 기업들의 자금줄이 막히고 있다. 지역 기업을 위한 은행들의 산업대출 규모가 줄고 있어 단순한 채무상환능력보다는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대출기준이나 심사가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주택 미분양 확산과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으며, 건설업종에 대한 대출의 직접권 전권을

축소했다. 국민은행도 마이너스대출 등의 신규 약정을 억제하고 부동산 PF 대출 취급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규제가 중소기업 등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하반기에 신용리스크 관리에 치중하기로 하고 경기 민감업종과 외부 감사인을 두지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처럼 금융권이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은 대출 확대 등을 통한 외형 경쟁이 경기 하강기에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역 기업들은 이번 금융권의 리스크관리 강화 방침에 곤혹스런 입장이다. 최근 원자재값 급등 및 내수 침체 여파로 채산성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돈 가뭄'이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이들 기업은 경기 하강기에 회사를 근경에 빠뜨릴 수 있는 '비올 때 우산 헛기 식'의 대출 회수는 자체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이 대출 억제에 나서면서 산업대출 규모가 눈에 띄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지역 예금은행의 산업대출 증가액은 1천9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인 3월(2천458억원)에 비해 20.3%(498억원)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 4월(2천640억원)보다는

25.8%(680억원) 급감했다. 금융권의 리스크 강화 움직임으로 인해 대출 증가액이 4분의 3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대출이 강화됨에 따라 광주·전남 기업들의 자금난도 날로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지난달 자금사정BSI는 70으로 전달(80)보다 10포인트나 떨어졌다. 또 자금수요BSI는 127에서 한 달새 130으로 상승한 반면 자금조달BSI는 95에서 81까지 급락하는 등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의 상반기 자금사정 조사결과 광주·전남 등 국내 중소기업의 65.7%가 자금사정이 '매우 곤란'(18.6%) 또는 '곤란'(47.1%)하다고 밝혔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 저소득층 대상 ... 5개 특구에 배정

광주를 비롯 전국적으로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사의 '전세임대주택' 공급이 시작된다. 17일 주택공사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신청을 받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주택공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소득계층에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올해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500가구가 공급된다. 광주의 경우 40가구의 '전세임대주

택'이 공급된다. 구별로는 동구 6가구, 서구 11가구, 남구 7가구, 북구 10가구, 광산구 6가구 등이 배정됐다. 주공측은 내년부터는 인구 30만명 이상의 도시까지 공급 지역의 범위를 넓혀 총 5천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이내이면서 자녀를 출산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입주 희망 신혼부부는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원하는 주택을 골라 주택공사에 계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광주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신청은 1순위가 25일까지이며, 2순위는 28일~30일이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주택구입 능력이 낮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지원을 통한 결혼 장려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 동업자 단체 사업 애로 상담 '세무멘토링 결연' 반응 좋아

광주세무서 전국 첫 시행  
광주세무서(서장 배춘호)가 지난 15일 전국 최초로 '동업자 단체에 대한 세무멘토링 결연식'을 추진, 업계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세무멘토링제는 업종별 세무전문 세무사 공무원을 멘토로 선발, 동업자단체의 대표인 멘티의 사업상 애로사항 등을 상담해주고 이를 세무행정에서 반영하며 세정소득도 알려줘 납세자를 가족처럼 섬기는 제도다. 광주세무서는 이날 관내 음식

### 토공 7조2천억·행정도시 1조6천억대 공공공사 발주 서두른다

한국토지공사는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7조2천447억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최대한 조기에 발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발주예정 공사는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성공사,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위례신도시 군부대 이전사업 시설공사, 남양주별내지구 주변도로 건설공사, 영종하늘도시 특수구조물 건설공사, 인천청라지구 경명로 입체교차로 건설공사 등이 있다. 공사종류별로 보면 토목·건축공사

### 양파·쌀보리 늘고 마늘·맥주보리 줄어

통계청, 올 생산량 조사  
양파와 꺾은마늘·쌀보리 생산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반면 마늘과 맥주보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08년 보리·마늘·양파 생산량 조사'에 따르면 양파 생산량은 103만5천t으로 작년의 121만3천t에 비해 14.7% 줄었다. 지난해 재배면적 증가로 가격이 떨어



### 여름 보양식 인기 만점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초복(19일)을 앞두고 17일 여름철 인기 식품을 위한 삼계탕, 토종리, 전복, 한우사골과 닭·전복·낙지·수삼 등으로 구성된 해신탕 등 다양한 보양식을 선보였다. <광주신세계 제공>

### 지역 중소기업 102곳 조사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대부분이 현재의 지역경기 상황을 '위기'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역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102곳을 대상으로 올 2·4분기 대기업 협력관계 및 경영애로 사항 조사한 결과 전체의 89.2%가 현 지역 경기 상황을 '위기'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기로 답한 이유로는 '환율, 고유

### 노인 일자리 창출 교육

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지부장 한재용)는 18일 오후 3시 광주시 남구 월산동 노인복지관에서 아파트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들에게 적합한 경비·미화·살비 등 아파트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60세 이상 남녀로, 이력서를 지원하고 교육에 참석하면 된다. 문의 062-222-7030.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 광주·전남 大山프리모닝네기발

## 가발

최신제품 70만원

최슬림!!  
이름없는 곱상한 미모  
귀여운 유행의 인기를 보여주는 유행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대표전화 011-873-5858, 873-4622  
광주지사 011-873-8336

###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A/S까지 최고의 품질로 보답드리겠습니다.

#### 유일정공(주)

주요사업: 주택, 아파트, 빌딩, 공장, 도로공사, 철도공사, 댐공사, 교량공사, 방파제공사, 방죽공사, 댐공사, 교량공사, 방파제공사, 방죽공사, 댐공사, 교량공사, 방파제공사, 방죽공사, 댐공사, 교량공사, 방파제공사, 방죽공사